중국의 관광동굴 개관

김 석 주

중국에서는 동굴탐험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남부의 귀주와 광서지방에는 광대한 카르스트지대가 펼쳐진다. 광서지방의 탑모양의 카르스트는 바늘봉 같은 특이한 풍경을 이루어 옛날 그림에도 자주 묘사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굴은 반대로 북부지방의 많은 작은 동굴이다. 주거지로 옛날에 인공적으로 파진 동굴로 황하분지에 많다. 부드러운 황도를 파서 예배당으로 이용된 것도 많다. 또 유명한 주구점의 동굴에서 북경원인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

중국의 동굴이라하면 석회동굴이 주로 된다. 국토가 넓기 때문에 중국본토의 화북, 화남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석회암 대지는 매우 넓게 발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지역에 많은 동굴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연동굴 그대로 방치한 상태이고 이 동굴의 학술적이고 학문적인 방향에서의 용도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동굴로는 화북지방에서의 일명 잠진동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는 석화동굴, 그리고 주림에 있는 노적암 동굴, 북경 교외 주구점의 원인동굴, 복건성에 있는 옥화동굴 등이 알려져 있다. 물론 장백산으로 불리우고 있는 백두산 산정부근에서도 그 규모는 크지 않으나 이색적인 용암동굴들이 발견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넓은 석회암 지대와 이미 발견된 동굴의 커다란 점을 감안해 볼 때 대형 동굴이 발견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 동굴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가 없는 상태이어서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이 유감스럽다. 더구나 중국에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은 화북 지방에 산재하고 있는 소형 동굴의 무리들이다. 이는 인공적으로 파서 그 옛날에 주민의 주택지로 이용하였던 곳으로 황하 분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참으로 황하유역 강변의 부드러운 황토층의 벽면에 동굴주거지로 이용되거나 예배당으로 이용되었던 흔적도 남아있던 인공 동굴들이다. 실제로 중국은 그 국토가 너무도 넓기 때문에 이 동굴들의 분포 실상도 알바없고 또한 부닥친 눈앞의 현실 때문에 동굴조사를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이다.